광주식품대전, 역대 최대 1만8000여명 다녀갔다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 5월 29일부터 나흘간 김대중센터서 개최

일본·벨라루스 기업과 차류·우리밀·전통장 등 수출협약 6건 체결

광주시는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인 '광주식품대전'를 열어 역대 최대인 1만8452명이 다녀갔고, 24개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 180억원, 수출협약(MOU) 8억3000만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식품대전'을 개최, 관람객과 바이어 1만8452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광주식품대전은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로, 기업 간 거래(B2B)와 소비자 대상 거래(B2C)를 아우르는 산업전시회다.

'지역과 함께하는 광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도약'을 주제로 농수산식품, 식품기기, 가공·냉동식품, 카페&베이커리 등 300여개 기업이 450여개 부스에서 다양한 식품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식품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상담회,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 투자상담회도 함께 열려 참가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다.

수출 상담회에서는 독일, 싱가포르, 필리핀 등 24개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총 180억원 규모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또 현장에서 일본, 벨라루스의 기업과 차류·우리밀·전통장 등 품목으로 총 6건 약 8억3000만원 규모의 수출협약(MOU)을 체결, 실제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국내 유통상담회에는 롯데홈쇼핑, GS리테일 홈쇼핑 등 24개 국내 유통사 MD(상품기획자)가 참여해 100억원의 상담액을 달성하는 등 지역 식품업체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벤처캐피털 투자상담회는 24개 참여업체와 5개 투자사가 상담을 진행해 77억원의 투자 상담액을 기록하는 등 초기 창업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에 역할을 했다.

이같은 성과에는 박람회 개최 시기 변경도 한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10월 개최는 타 식품박람회와 일정이 겹쳐 광주식품대전의 집중도가 떨어졌고, 연말을 앞둔 시기라 업체들의 새 사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개최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앞당겼다. 이는 참가 업체와 유통업계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요 시기와 맞물려 계약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쾌적한 봄철 날씨와 연휴가 맞물리면서 참관객 수도 지난해 대비 1044명 증가한 1만845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박람회 기간에 '광주주류관광페스타'와 'Gwangju Tea&Cafe Show(티앤카페쇼)', 'G-Festa(지페스타) 봄 광장 문화축제'가 동시 개최돼 참관객들은 한자리에서 다양한 행사를 즐기는 '일석사조'의 효과도 누렸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연 행사도 참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친환경 K-FOOD 창업요리대전에서는 일반부 '대상'에 국립순천대학교 파돌이팀(전도희·정미진·오윤서)이, 대학부 '대상'은 수찬상팀(황은찬·박수민·이중엽)이 수상했다. 특히 안유성 셰프가 지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최한 '전국 초밥왕 대회'는 현장을 달구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의 농식품 업체들이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광주시의 역할"이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광주의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 공공배달앱 6월 주말 '더 크게 쏜다'

광주시 4000원 할인에 공공배달앱 자체 할인 프로모션 추가

광주시가 광주공공배달앱 이용자들에게 6월 한 달 간 '통 큰 할인' 혜택을 선사한다.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공공배달앱 할인 혜택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주말할인 기간과 금액 확대, KIA 타이거즈 응원 특별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먼저 기존에 토·일요일 제공하는 주말 할인쿠폰을 금요일까지 확대해 금·토·일 3일 간 제공하고, 할인금액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늘린다. 이는 현충일 연휴기간인 6일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KIA 타이거즈 원정 경기 기간인 24일에서 29일까지는 KIA 타이거즈의 승리를 기원하는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배달앱 운영사 자체 할인 프로모션과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인(약 4000원)까지 추가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1만1000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부터 30일까지 광주상생카드로 광주공공배달앱에서 1만5000원 이상, 3회 이상 결제(1일 1회 결제에 한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7월에 5000원 할인쿠폰 또는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6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회 결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만원 추가 할인쿠폰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광주시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해 정부 추경에 650억원이 반영,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광주시 공공배달앱 6월 특별할인 프로모션은 광주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공배달앱 운영사인 '땡겨요'와 '위메프오' 앱을 통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올해 4월 기준 1만5400여개소이다.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주문 건수는 192만건, 누적 매출액은 473억원에 달하는 등 전국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해수부 어촌분야 농산어촌개발사업 전국 최다

지역 맞춤형 어촌 활력 창출·지속적 정주여건 개선 본격화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권역단위에 고흥 동일, 완도 보길동, 장흥 회진, 신안 대광, 4개소와 지역역량 강화에 장흥 1개소가 선정돼 사업비 2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어촌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활 기반을 활용한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소는 지역자원의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흥 동일권역은 '안전하고 즐거운 삶터 조성'을 핵심 목표로 한다. 면 소재지에 부족한 주민 공동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어울림센터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흥 회진권역은 어촌 고령화에 대응한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목표로, '따숩게 회관', '가만히 안아주는 집'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인다. 전국 최대 낙지 산지의 강점을 살려 청년 낙지연구소와 모두의 독서실을 조성해 세대 통합형 복합문화공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완도 보길동권역은 청장년, 다문화가정, 귀어인 등 다양한 구성원을 아우르는 '열린 공동체 권역'을 제시했다. 문화복지센터와 어귀마당을 주민 주도로 조성해, 모든 세대를 보듬는 통합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신안 대광권역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마을 형성을 목표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마을을 조성한다.

전남도는 이번 신규사업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역 역량 강화 분야에 선정된 장흥은 어촌 분야 농산어촌개발사업의 2027년 신규사업 발굴 및 리더 양성 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남 어촌이 지닌 잠재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어촌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16개 어촌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고,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역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해 농산어촌 통합개발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팔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전남도,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13일까지 시군서… 컨설팅·장비·저장시설 등 최대 50억

전라남도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논콩, 옥수수 등 타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2026년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은 논콩, 옥수수 등 주요 전략작물 생산·유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기계·장비, 저장·선별시설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야별 지원 금액은 교육·컨설팅 3천만 원, 기계·장비 1억~8억 원, 저장·선별시설 등 사업다각화에 최대 50억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교육·컨설팅, 기계·장비는 90%, 사업다각화는 80%를 지원한다.

분야별 지원 횟수는 교육·컨설팅 4회, 기계·장비 2회, 사업다각화 2회다.

지원 대상은 10ha 이상 공동영농을 하면서 논 타작물을 5ha 이상 재배하는 논 타작물 단지와 50ha 이상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들녘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이다.

지원을 바라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각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사업 신청자가 정부 공모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서면 및 발표평가 컨설팅을 자체 지원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쌀 적정 생산과, 벼 보다 소득이 높은 논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려는 단지가 늘고 있다"며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경영체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인 기자